

09. 『동호문답』

조선 시대 선조 2년(1569년)에 율곡이 지은 문장이다. 이때 율곡은 34세로 홍문관 교리였다. ‘동호문답(東湖問答)’은 ‘동쪽 호수(東湖)에서 묻고 대답함’이란 뜻으로 율곡이 ‘사가 독서(賜暇讀書, 휴가를 받아 책을 읽음)’의 과제로 제출한 것이다. 당시에 조정은 젊은 관료들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고, 업무를 떠나 동호에 있는 독서당(讀書堂)에서 글을 읽도록 하였는데, 매달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율곡은 홍문관 교리로서 여기에 선발된 것이다. 현재 필사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조수정실록> 3권, 선조 2년 7월 1일에 ‘교리 이이가 『동호문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교리 이이가 『동호문답』을 올렸다. 당시에 호당(湖堂)에서 사가 독서(賜暇讀書)를 하는 유신(儒臣)들은 규정으로 매달 지은 시문을 바치면, 대제학(大提學)이 등급을 매겨서 과업(課業)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이는 그곳에 있으면서 매달 과제로 수만 글자에 달하는 『동호문답』을 지어 올렸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같은 날짜 실록에는 『동호문답』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내용은 먼저 고금의 군신 관계와 국가의 치란에 대하여 논했고, 이어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조목별로 자세히 서술한 것이었다. 임금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동호문답』은 말하자면 문답식으로 서술한 정치사상서라고 할 수 있다. 『동호문답』의 맨 첫 부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호(東湖)의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손님 :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혼란스러워집니까?

주인 :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손님 :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 :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호걸(豪傑)들을 잘 부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다스려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란 뜻입니다. 반면에 임금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믿고 여러 아랫사람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치우치게 믿어서 임금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

란 뜻입니다.

위에 소개한 인용문은 「임금의 도리를 논함(論君道)」의 첫 부분이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모두 11개의 주제에 대해서 논한 것이 『동호문답』이다.

『동호문답』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논군도(論君道) :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임금의 바른 도리인가를 논함
- (2) 논신도(論臣道) : 신하의 도리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
- (3) 논군신상득지난(論君臣相得之難) : 도학을 존중할 것을 논함
- (4) 논동방도학불행(論東方道學不行) : 우리나라에서 도학이 행해지지 못함을 논함
- (5) 논아조고도불부(論我朝古道不復) : 우리나라에서 옛 도가 행해지지 못함을 논함
- (6) 논당금지시세(論當今之時勢) : 현재의 형세를 논하고 정치의 방법을 논함
- (7) 논무실위수기지요(論務實爲修己之要) : 실질에 힘쓰고 수양의 요체를 논함
- (8) 논안민지술(論安民之術)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법을 논함
- (9) 논교인지술(論教人之術) : 백성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방법을 논함
- (10) 논변간위용현지요(論辨奸爲用賢之要) : 간신을 멀리하고 현인을 등용해야 함을 논함
- (11) 논정명위치도지본(論正名爲治道之本) :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임을 논함

『동호문답』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끝을 맺었다.

손님 : 그대의 말은 참으로 시무에 절실한 것이지만, 다만 이전의 왕이 이미 정해놓은 일을 후대의 왕이 어찌 감히 고치겠습니까?

주인 : (길게 몇 번 탄식 하고) 세속의 견해가 하나같이 이러니 왕도 정치를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일을 잘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명종의 뜻이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 것은 명종의 일입니다. (중략)

아! 국사를 정하지 않으면 인심이 쉽게 동요되고,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이 미진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간사한 무리의 소굴을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元氣)를 붙잡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자는 믿을 곳이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소인은 엿보는 곳이 있어 그 악을 이으려고 할 것이니,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의 말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탓하여 반드시 고치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면, 옛날에 문왕(文王)은 상(商)나라를 섬겼지만 그의 아들 무왕(武王)은 주(紂)를 죽였으니, 이것도 또한 아버지의 도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 : (두 번 절하며) 그대의 말이 참 좋습니다. 그대의 말이 만약 시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삼황오제의 왕도정치를 볼 것입니다.

주인은 물러가서 그 문답한 말을 기록하였다.